

책이 좋아 '궁리'에 모인 사람들

유연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반잡아...

출판의 아날로그적 가치 되살려놓아

궁리의 성공 뒤엔 이를 가능하게 해준 유연한 인적 네트워크가 자리잡고 있다.

프리랜서 기획자로 구성된 이 모임은 궁리란 열린 공간에서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들을 생산해 낸다. 뿐만 아니라 도서 선정부터 번역, 신간정보, 원고 검토, 웹사이트 운영까지 출판사의 거의 모든 업무를 도맡아 조율해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출판사의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궁리의 '성공이야기'가 출판계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궁리는 자연과학과 인문철학 분야의 교양서를 펴내는 출판사로, 생김 지 2년도 안된 '새내기' 출판사. 하지만 참신한 책들을 잇달아 펴내면서 이미 중견출판사 못지 않은 두터운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궁리가 출판계의 이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나는 달린다》(요시카 피셔, 전주성), 《희망의 이유》(제인 구달, 박순영) 등이 잇달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면서였다. 특히 언론이 보여준 관심과 호의는 주위의 시샘을 살 만큼 대단했다. 《희망의 이유》는 3대 일간지의 북섹션을 한날 한시에, 그것도 '툭'기사로 장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궁리가 유명세를 타게 된 데는 나름의 사연과 배경이 있다. 우선 이갑수 대표가 과학전문출판사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실력자고 출판계의 '마당발'로 통할 만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폭넓게 교류해왔다. 그래서인지 궁리 주위엔 사람이 많다. 개방적인 운영을 통해 출판계의 숨은 인재들을 기획자와 번역가로 끌어들이 출판사의 독특한 이미지를 쌓아온 것이다.

과학전문 출판사에서 얻은 풍부한 노하우

"민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과학 부서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1995년 민음사가 이 부서를 '사이언스북스'란 사회사로 독립시킬 때 책임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황무지와 다름 없는 국내 과

학출판물 시장에서 사이언스북스는 대중에게 양질의 교양과학서를 공급하는 거의 유일한 출판사였죠. 그런데 1998년 IMF를 맞아 출판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게다가 개인적인 악재가 겹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갑수 대표가 말하는 자신의 '전력'이다. 하지만 그는 회사를 그만둔 지 6개월만인 1999년 3월 '궁리'란 이름으로 출판계에 '귀환'했다. 출판에 대한 미련을 좀체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돌아올 때 그의 각오는 다부졌다. '궁리학'(窮理學)에서 따온 출판사 이름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다.

"동양에서 '궁리학'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다져나가는 학문입니다. 단순한 기술과학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 문제를 함께 생각하는 학문이지요. 문학과 철학이 교차하고 있는 지점에 놓인 주제를 다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표가 꿈꾼 것은 과학의 대중화다. 애초부터 궁리를 대형출판사로 키워나갈 생각은 없었다. 양질의 도서를 지속적으로 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였다.

현재 이대표를 포함해 다섯명이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다. 단 두명으로 시작했던 초창기에 비하면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 그런데 궁리는 출범 당시부터 '후원자'들이 많았다. 이대표가 사이언스북스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선배들이 출판사에 자주 드나들며 책과 출판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궁리는 소규모 출판사로는 보기 드물게 외부 편집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궁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책을 선정하고 원고를 선별하는 일에서 기획, 번역, 신간정보, 웹사이트 운영까지 이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매주 한번 기획회의를 여는 편집위원회의 결성 과정은 매우 흥미롭다. 대학 선배로, 출판사 동료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이 양서 만드는 일에 흔쾌히 뜻을 모았다.

외부 인적 자원의 효과적 활용

서강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인문학 분야의 기획자·번역가로 활동 중인 장석봉씨, 장씨의 같은 과 후배인 출판칼럼니스트 표정훈씨, 영어권 전문번역가로 일하는 이민아씨. 세 사람 모두 '프리랜서'로, 궁리의 출범 당시부터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아는 사람이 출판사를 차렸다길래 들락날락하다보니 열거에 기획에도 참가하게 됐다"고 궁리와 맺은 인연을 설명한다.

처음엔 세명이었지만 곧 프랑스어권 전문번역가 장석훈씨가 합류했다. 이들은 모두 인문학 분야 출판기획에 첫발을 내디딘 '젊은 피'다. 과학 쪽엔 서울대 생물학과 출신들이 포진했다. 이대표의 대학 후배기도 한 당연중씨와 이한음씨가 그들이다. 이들은 이력이 독특하다. 각각 회계사와 공무원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틈을 내 궁리의 기획에 참여하고 번역활동도 하고 있다.

다양한 인적 자원으로 짜인 편집위원회는 궁리를 움직이는 '실세'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이야기. 책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 즐겁다고 생각할 뿐이다. 하지만 '부담감' 없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다른 출판사와 여타 공리의 진정한 경쟁력이다. 개방적인 출판사 운영이 뜻있는 사람들의 만남을 이끌어냈고, 이들의 자유로운 교류에서 출판 아이템이 나왔다. 유연한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이 공리의 '현재'를 만든 원동력이 된 것이다.

오래된 책을 선호하는 이유

공리에서 펴낸 책의 80%는 번역서다. 공리의 번역서 출간엔 한가지 원칙이 있다. 에이전시를 통해 책을 소개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책을 골라선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편집위원들 취향도 제각각이고 자기주장도 강해 추천작을 놓고 벌이는 토론의 열기도 뜨겁다. 공리가 내세우는 또다른 원칙은 신간보다는 출간된 지 1년 이상 지난 책들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당연증씨는 그 이유를 다음처럼 밝힌다.

“좋은 책을 찾다보니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한 책의 진정한 가치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정확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아마존 베스트셀러든, 수많은 언론들이 찬사를 보내는 동안, 신간은 출간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주목받게 마련이거든요. 이런 책일수록 오히려 더욱 철저한 내용 검증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유전학》(래리 고닉 그림·마크 윌리스 글, 윤소영)은 공리의 편집 원칙에 입각해 펴낸 책이다. 외국에선 대학생들 사이에서 널리 읽혔지만 국내에서는 한번 번역됐다가 별 인기를 끌지 못하고 단명했다. 서점에서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한 표정훈씨가 편집회의 때 들고 왔고 만장일치로 번역 '가' 판정을 내렸다. 어려운 이론을 만화란 형식으로 재미있게 포장하고 있어 흥미로웠다. 예상은 적중했다. 출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과학분야 베스트셀러가 됐던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수학공식》(리오넬 살렘 글·코랄리 살렘 그림, 장석봉)은 수학 공식의 원리를 짚어주는 책으로 지난해 수학 대중서 붐이 일었을 때 전략적으로 내놓은 책이다. 번역은 장석봉씨가 직접 맡았다. 이 책 역시 '성적'이 좋았는데 이대표는 학생들에게 뚜렷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기획회의는 공리의 출판정신과 경쟁력의 원천이다. 각자가 인성있게 밝은 외국출판물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책과 출판, 살아가는 이야기 등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간다. 좌측 두번째부터 장석봉씨, 이민아씨, 이갑수 대표, 표정훈씨.

'학습효과'를 가져다준 것이 판매호조를 이끈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그 밑바닥엔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순발력 있는 기획과 독자들의 심리를 제대로 읽어내는 안목이 깔려 있다.

사회 흐름을 잘 읽어내는 유연한 기획

《희망의 이유》는 이민아씨가 발굴했다. 이씨는 제인 구달의 명망이 대중에게 먹혀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추천했다. 마침 이대표는 민음사 근무시절 제인 구달의 청소년용 자서전을 펴낸 경험이 있었다. 종교적인 분위기가 배어나오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결국 출간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번역은 제인 구달의 한국 방문시 통역을 했던 박순영씨에게 맡겼다. 이 책의 '운명'을 결정판 것은 출간시기였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는 내용이 연말 분위기와 맞아 떨어지면서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던 것이다.

한번은 기획회의에서 '달리기'에 관한 책을 펴내는 것은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다. 그 말을 듣자 이대표의 머리를 스치는 책이 있었다. 독일 외무장관 요시카 피셔가 펴낸 자서전이였다. 이 책은 사회적으로 승승장구하던 40대 후반의 한 정치인이 개인적인 삶에서 위기를 맞고, '달리기'를 통해 삶을 정돈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나는 달린다》다. 지은이가 대중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정치인이라는 점과, 그림에도 전혀 정치색을 띠지 않은 점에 높은 점수를 매겼다. '느림'을 주제로

한 책이 쏟아져나와 자기성찰적 책읽기가 유행하던 당시의 분위기도 이 책의 출간을 서두르게 했다.

공리닷컴(www.kungree.com)은 공리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이 웹사이트는 출판사 홈페이지이지만 출판사 홍보나 책판매와는 전혀 관계없다. 이곳에선 국내의 출판사와 서점, 도서관 및 출판교육기관의 분야별 리뷰와 링크를 서비스하고, 책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칼럼으로 꾸며진 '출판전문 콘텐츠 생산기지'다. 운영자 표정훈씨는 "현재까지 이곳에 다녀간 방문자 수가 9만명에 육박한다. 그만큼 공리의 독자층이 확대됐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잘 운영해 독자와 신뢰를 쌓아두면 오프라인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렇듯 공리의 비약적인 발전은 편집위원들의 '지원사격' 결과다. 이들의 활동은 '사람이 자산'이란 전통적인 명제가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진리임을 증명해준다. 사내의 가족적인 분위기, 외부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활동할 공간을 마련해주는 개방적 운영 형태, 인간적으로 맺어진 편집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 등 공리의 경쟁력은 지극히 '아날로그적'이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수많은 출판사들이 체질 개선의 '고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느릿느릿 걸어가며 출판 본연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공리의 '인간적인' 행보는 우리 출판계에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 강성민 기자